

# 싱가포르 결핵관리

## — 편 집 부 —

### 서론

결핵은 제2차 세계대전후 70년대를 거치면서 인류의 최대 질병으로 거론되고 있다. 아직도 싱가포르의 도시 지역을 여지없이 강타하여 복병으로 남아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결핵은 천연두와 소아마비 질환을 퇴치하듯 완전퇴치가 어려운 질환으로 결핵균은 폐, 골수, 근육조직 등 부드러운 조직에 침투하여 피해를 준다. 주로 감염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결핵균에 감염되는 대상이다.

전세계적으로 결핵은 많은 나라에서 생활 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과거 10여년동안 매년 1,500명의 결핵신환자가 등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환자가 완전히 치료하지 않는 한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치료동기 부족, 경제적인 어려움 및 잦은 여행 그리고 무관심 등은 환자들이 완전히 치료할 수 없는 주요요인이다.

1997년 4월 싱가포르 정부는 앞으로 15년 이내에 결핵퇴치를 목표로 하는 싱가포르결핵퇴치프로그램(Singapore Tuberculosis Elimination Programme-STEP)을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결핵발병률 10만명당 10명에서 백만명당 1명 이하로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연구진들이 결핵균을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약제를 제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들이 6개월 단기치료처방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금 결핵의 위험성에 대해 경시하는 태도는 또다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시태도는 가난하고 밀집된 지역에서의 결핵 만연을 유도하는 요인이 된다.

세계보건기구는 1993년 결핵비상을 선포했다. 가난은 계속적인 결핵감염을 초래한다. 더욱이 완전히 치료하지 않아 현재의 약제에 대해 내성을 가진 결핵균을 양산하게 되어 어려움이 더하고 있다. 결핵발생이 주로 저소득 국가와 관



▲엑스선 검진모임.

련되어 있어 제약회사들이 새로운 항결핵약제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1997년은 싱가포르결핵협회(SATA)의 창립 50주년으로서 가장 오래된 질병으로 결핵이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재인식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다. 우리에게겐 아직도 여러부문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특히 싱가포르결핵협회는 사랑의 정신으로 헌신한 지원자들에 의해 설립되었고 지금도 그런 정신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50여년이 넘도록 저명한 교수, 사업가, 은행가, 기업인, 저명 인사의 부인들 및 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결핵퇴치기금 조성자로서 시간과 정력을

기울였다.(주로 복십자에서 연초에 크리스마스 쉴 캠페인을 벌였고 협회 창립기념시 기금을 모금했다.)

현재 싱가포르결핵협회는 많은 사람의 죽음을 초래한 결핵퇴치에서 진료영역을 확대하여 심장질환외에도 포괄적인 방사선 및 검사업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1. 결핵관리사업

### 1. 초창기 결핵관리사업(1947~1972)

일본군의 점령이후 결핵은 사망원인이 되었다. 초창기에 결핵은 극빈자, 죄수, 정신이상자들을 괴롭혔으며 의료진은 가난한 지역의 밀집된 곳에서의 생활

이 결핵을 순식간에 퍼뜨리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집단이 그 위협에 처해졌다.

그 당시 의료진들은 만연되고 있는 콜레라, 천연두, 이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싱가포르결핵협회는 1947년 8월 23일 창립되었다. 의료, 지역의 사업가 및 지역의 유지들이 창립 멤버들이다. 싱가포르결핵협회 창립 동기는 일본군 점령시 찬기(Changi)감옥, Sime Relocation 캠프에 억류되어 있는 싱가포르인 집단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전쟁이 끝나 자유를 얻고 일반적인 시민생활로 돌아왔을 때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전기불이 제공되지 않아 감옥에서의 저녁시간은 길었다. 결핵퇴치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의논되었고 전쟁이 종식되고서야 명확한 프로그램으로 공식화되었으며 이를 위한 토론회가 구성되었다. 안건들이 제시되었고 최종안은 정부에 제출되었다. 정부와 싱가포르결핵협회 창립멤버가 모인 자리에서 허가를 받았고 어떠한 지원도 없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6~14세 연령군이 결핵에 많이 걸리는 것을 보고 왜 결핵이라는 반문을 던졌다. 전보다 더욱 6~14세 연령군에서 발병환자가 많았고 결핵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공중보건문제로 대두되었다.

19세기와 20세기 중반의 결핵치료는 요양원에서 안정을 갖거나 감염된 폐 주

위에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싱가포르결핵협회는 방사선사와 관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수술을 감독하도록 했다. 1948년 9월 갈릭(Dr. G. H. Garlick)이 초대원장을 역임했다.

1950년대에는 주로 허탈요법(Collapse therapy)에 의해 치료되었고 하루 100건씩 행해졌다. 그리고 외래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자연스럽게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기부금과 자선행사 그리고 크리스마스 썰 캠페인을 통해 기금을 모을 수 있었다.

1949년 임시치료소가 앤드류미션병원(St. Andrew's Mission Hospital)옆에 지어졌다. 공기요법을 위한 방과 함께 2층에는 주사실이 있고 3층에는 의사를 위한 방이 있었는데 목조로 된 이 건물은 동시에 일을 담당하기에는 다소 좁은 공간이었다.

1949년 말에 싱가포르결핵협회는 \$ 115,512으로 의료를 계속해 나갔다.

싱가포르결핵협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한달에 \$5,000가 필요했다. 그 당시 주요 목표는 결핵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행할수 있는 현대식 시설을 갖춘 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600,000이 필요했다.

1950년대는 싱가포르결핵협회에 중대한 해로 지원과 활동이 활발하였다. 많은 사업가들이 기부금을 냈고 부지도 제공했다. 이에 싱가포르결핵협회는 드디어 질병치료를 위한 시설을 갖추기에 이른 것이다.

불우결핵환자돕기 기금 \$40,000이 적립되었다. Phoh kiu Siang T'ng이 \$20,

000을 기부했고 복지부에서 \$25,000을 출현했다. 약 23명의 기업가들이 자사 직원의 치료를 위해 기부했는데 의사를 위한 차량지원이 있었고 사회사업부원을 활용하였다.

1952년 협회는 셉튼웨이(Shenton Way)에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왕립결핵의원을 건립하였으며 그 당시 백만달러의 경비가 지출되었다. 갈릭 초대원장과 초대의장 에드워드의 공이 컸다.

새로운 시설을 갖춘 의료시설이 필요했는데 이는 환자수용시설의 부족과 서비스 향상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1951년과 1952년 사이에 118,411명에서 132,124명으로 증가했고 엑스레이상 환자는 41,000명에서 51,000명으로 진찰건수는 9,112에서 13,30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45,000m<sup>2</sup>면적의 셉튼웨이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넓은 부지와 맑은 공기를 회상하고 있다.

두 개의 출입문이 따로 있었는데 엑스레이 촬영과 검사를 받기 위해선 오른쪽문을 사용하고 치료와 재활을 위해서는 왼쪽문을 사용했다.

환자들은 격리수용 치료를 받았는데 무척 치욕적으로 생각했다. 진단센터는 파시로드(Parsi Road)를 향하고 있었고 치료실은 프린스에드워드 로드(Prince Edward Road)를 향하고 있었다.

병원이 개설되기 전에 치료소에 일반적인 치료과정이 있어서 오전 9시와 11시 사이에 엑스레이 촬영을 받을 수 있었



▲앤드류 미션병원.

고 결과는 다음날 아침에 볼 수 있었다. 엑스레이 필름상으로 환자임이 판명되면 투베르쿨린 테스트를 받았고 이를 후에 결과를 알 수 있었다. 투베르쿨린 조사에서 음성일 경우 비시지접종을 했다. 엑스레이 필름상 양성이거나 의심이 갈 경우 혈액과 가래 검사를 위해 검사실로 보내졌고 엑스레이 촬영을 반복했다.

많은 사람을 집단검진 하므로서 결핵 환자를 추적하는데 주력하였다. 1950년 까지 30,000명이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10%이상에서 결핵환자로 판명되었다. 결핵발견외에도 면역력을 갖기위한 백신 접종은 가장 중요한 예방책으로 이행되었다.

싱가포르결핵협회와 정부의 주요 공동 목표는 가능한한 어린이에게 접종을 시행하는 것이었다. 대전 후 특히 어린이 층에서 결핵환자 발생률이 현저하게 증가했다. 비시지 백신 접종사업은 1949년 5월 26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주의를 기울일 분야로 대중의

인식과 싱가포르결핵협회에서 계획한 퇴치 정보의 캠페인화였다.

1949년 "SATA Review"라 불리는 영어로 된 출판물을 인쇄하기 시작했다. 1952년에는 영어로 된 인쇄물들이 중국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싱가포르결핵협회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한 환자들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추적조사하였다. 접근방법중의 하나로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정치료(Home treatment)였다.

싱가포르내에서 침대의 부족과 싱가포르결핵협회의 자금부족으로 미루어볼 때 많은 결핵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됐다.

가정치료는 안정을 취하게 하고 매일 일정량의 스트렙토마이신 등 결핵약을 복용하게 하는 것이다. 정규적인 엑스레이 검진은 내과 의사에 의해 필요할 때 혹은 정규적으로 검사되었다.

위급한 정보 및 항결핵과 결핵퇴치를 위한 공중의 지원을 얻기위해 SATA Review지는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결핵의 공포를 주지시켰다. 치료센터에 있는 감독자들은 60세의 고령자를 어떻게 싱가포르결핵협회로 오게할 것인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친구들은 불우한 이웃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장소를 찾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결핵으로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영양부족으로 시달렸다. 50세의 한 남자는 항상 늦게 치료소를 찾아왔다. 그 이유는 차비가 없어 걸어서 오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결핵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일거리마저 주지 않았다.

또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중에 있었는데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는 재활센터의 운영이었다. 여러 부문이 있었으며 재봉틀과 인쇄기가 제공되었다. 뜨개질과 박스만드는 기술이 도입되었다.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들은 1957년에 개설된 싱가포르결핵협회사가에 팔렸다. †

#### 〈싱가포르결핵협회 연혁〉

- 1947 싱가포르결핵협회 설립
- 1948 앤드류 병원 (St. Andrew's hospital)에서 진료시작
- 1952 샌튼웨이에 왕립싱가포르결핵의원 설립
- 1953 결핵의료보험 도입
- 1955 이동치료서비스 도입
- 1959 전지역 엑스선 집단이동검진 실시
- 1962 우탐람의원 (Uttamram Clinic) 설립
- 1967 싱가포르 결핵, 폐 및 심장협회(전 왕립 싱가포르결핵협회)로 개칭
- 1981 켄톤먼트르도로 싱가포르 결핵, 폐 및 심장협회 이전
- 1986 제16차 국제항결핵연맹 회의 주최
- 1988 초음파 심장검진법 도입
- 1990 싱가포르결핵협회 내 주롱의원 (Jurong Clinic) 개설
- 1992 의료장비 전산화
- 1993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서비스 도입
- 1997 싱가포르결핵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제19차 국제항결핵 및 폐질환연맹 동부지역회의 개최

본문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FIGHTING TB 일부를 번역 기술한 것이다.